

『常綠樹』 연구

曹 南 鉉

(국어국문학과 교수)

1. 『常綠樹』의 출생과정

沈熏의 장편소설 『상록수』는 동아일보에 1935년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127회 동안 연재되었다. 이미 작품이 탈고된 후 연재된 것이기에 주제도 분명하고 문장도 안정되며 구성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다만 93회, 94회, 95회, 96회 순으로 연재되어야 할 것이 누구의 실수로 그리된 것인지 95회, 93회, 94회, 96회 순으로 실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내용 자체가 뒤바뀐 것이 아니고 번호가 잘못 매겨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록수』는 출생 과정이 독특한 작품이다. 작품 『상록수』는 신문 연재소설이기는 하나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뽑힌 것이며, 작가 심훈은 신인이 아니라 이미 『탈춤』, 『영원의 미소』 등과 같은 여러 편의 장편소설을 써 낸 엄연한 기성작가였다. 동아일보는 1935년 3월에 앞으로 4월 1일자로 창간 15주년을 맞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상금 5백원을 걸고 장편소설을 공모하였다. 그리고는 <朝鮮의 農漁 山村을 背景으로 하여 朝鮮의 獨自의 色彩와 情調를 加味할 것>, <인물 중에는 한 사람 짬은 朝鮮靑年으로서의 明朗하고 進取的인 性格을 설정할 것>, <新聞小說이니만치 事件은 興味있게 展開시켜 都會人 農漁 山村人을 물론하고 다 熱讀하도록 할 것>¹⁾ 등의 조건을 내 걸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장편소설 공모의도를 <朝鮮 農漁山村 文化에의 寄與>와 같이 추상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 농촌운동이니 브나로드니 하는 말은 쓰지 않고 있다. 1935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심훈 씨의 『상록수』를 당선작으로 선정한 그 심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장편소설을 공모하는 취지와 응모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 번 소개하였다.

동아일보는 농촌소설이나 농민소설을 희망했을 뿐 구체적으로 농촌계몽소설이나 농민 교화소설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상록수』의 연재를 예고하는 날자의 신문에서도 농촌계몽소설과 같은 용어는 쓰지 않았다. 신문에서는 <계재되는 동안에 남녀 주인공의 씩씩함을 배워 「나도 일하리라」고 팔을 걷고 나설 이땅의 젊은이가 수만히 있을 줄 압니다. 그 뿐입니다, 여기에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각각 구하는 대로 이 소설에서 얻을 것입니다>고 독자반응의 방향과 수준을 예시하였다. 심훈은 자신과

1) 『동아일보』, 1935.3.20

동아일보사와의 각별한 인연을 털어 놓으면서 『永遠의 微笑』의 후편을 쓰려고 했던 참에 <社에서 注文한 모든 조건이 작자가 생각하여 오던 바와 우연히 符合됨에 용기를 얻어 그 公約을 履行할 機會를 얻게 되었습니다>고 했고 <빈약하나마 머리를 짜내기에는 가장 괴악한 늦은 봄철에 한 50일 동안을 晝夜兼行으로 펜을 날려 期限과 回數와 또는 그 밖의 모든 구속을 받으면서 써 낸 것입니다>고 밝혔다.²⁾ 이 소설의 마지막 연재분의 끝부분에는 <1935년 6월 26에 탈고한 것>이라는 부기가 있다. 6월 26일까지 50일 정도 쓴 것이라면 그는 5월 초께 집필을 시작한 것이 된다.

심훈은 1932년에 충청남도 唐津郡 松嶽面 富谷里로 낙향한 이래 『영원의 미소』(『조선중앙일보』, 1933.7.10-1934.1.10), 『직녀성』(『조선중앙일보』, 1934.3.24-1935.2.26)과 『상록수』 등을 탈고했다. 그는 이 무렵에 낙향 이전의 자신의 삶을 <어쭙지 않은 사회봉사, 입에 발린 자기희생, 어떠한 주의예의 노예>와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영원의 미소』, 『직녀성』, 『상록수』는 남녀 주인공들이 경성을 떠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의 개척>을 표방하면서 농촌으로 들어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경성에서의 과거 생활에 대한 반성은 그를 농촌으로 돌아 가게 만들었고 귀향모티프와 계몽모티프를 필수 모티프로 한 소설을 쓰게끔 만들었다. 그는 20년대 말과 30년대 초에 걸쳐 「조선은 술을 먹인다고」(1929), 「筆耕」(1930), 「토막생각」(1932) 등의 시를 써 내었는데 이들 작품들에서 심훈이 현실을 비판하거나 자조하는 태도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조선은 술을 먹인다고」에서 <카페의 의자를 부수고 술잔을 깨뜨리는 사나이가/피를 아끼지 않은 조선의 테러리스트요/파출소 문 앞에 오줌을 깔기는 주정꾼이/이땅의 가장 험악한 반역아란 말이나?>고 자조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은 다음, 「토막생각」에서는 <전등 끊어 가던 날 밤 촛불 밑에서/나어린 아내 눈물지며 하는 말/<시골 가 삼시다. 두더지처럼 흙이나 파먹게요>와 같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심정을 털어 놓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심훈은 비록 카프 측으로부터 소의 당하기는 하였지만 「그날이 오면」을 비롯한 몇 편의 시와 연재 중단 조치를 당하고 만 「동방의 애인」, 「불사조」 등의 소설, 그리고 기미 만세 가담, 焰群 加盟, 鐵筆俱樂部 事件 연루 등의 경력에서 잘 입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면 래디칼리스트요 인노베이터에 해당된다.³⁾

심훈은 1920년대 후기에서 1930년대 초기에 걸쳐 급진주의적 지식인으로서, 작가로서 또 한 가장으로서 실패를 거듭하였고 바로 이 거듭되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마침내 심훈을 시골 구석으로 밀어 넣게 된 것이다. 『상록수』 연재가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동아일보에 발표된 「筆耕畝 雜記」의 제 6회 「조선의 영웅」에서 심훈은 행동컴플렉스나 실천컴플렉

2) 『동아일보』, 1935. 8.27.

3) 줄재,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204쪽.

스에서 헤어날 수 없고 있음을 드러 낸다. 말 뿐인 영웅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는 소영웅>을 진정한 영웅으로 보고 있는 이 글을 통해 작가가 박동혁이나 채영신과 같은 인물을 설정한 동기를 알게 된다.

百가지 千가지 골치 아픈 理論보다도 한가지나마 實行하는 사람을 崇拜하고 싶다. 살살 입살발림만 하고 턱밑의 먼지만 툭툭 털고 앉는 百名의 理論家, 千名의 藝術家보다도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의 農村 靑年이 所重하다. 시래기죽을 먹고 겨우내 「가가거겨」를 가르치는 것을 天職이나 義務로 녀이는 純眞한 啓蒙運動者는 「히틀러」, 「뭇소리니」만 못지 안흔 朝鮮의 英雄이다.⁴⁾

단 한 사람의 실천적인 농촌청년이 소중하다는 생각은 『영원의 미소』, 『직녀성』, 『상록수』의 창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심훈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해 소설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심훈 자신이 <小生은 硬派, 軟派, 또는 억지프로派, 難澁派의 작품은 질기지 안코>⁵⁾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설을 자립성이 강한 서술양식으로 보았다.

2. 『상록수』의 정신사적 배경

1931년 3월에 일본에서 일어난 무혈 쿠데타의 주역 宇垣一成이 같은 해 6월 17일에 조선총독으로 취임하면서 일선융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일환으로 농촌 진흥 정책을 펼쳤다.

진흥운동의 특질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진흥운동의 슬로건을 춘궁기 퇴치, 借金퇴치, 차금예방의 3가지에 두고 있다. 우원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내선융화 실현을 위해서는 농민의 구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시 농촌에 가장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춘궁기와 차금을 퇴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두번째로는 운동의 대상을 개개의 농가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로는 진흥운동이 물질일여의 운동으로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⁶⁾

『상록수』는 총독부에 의한 농촌진흥책의 내용과 일치하는 운동을 전개한 흔적을 보여 준다. 박동혁이 세운 공의 하나로 강기천으로부터 차금퇴치와 차금예방을 얻어 낸 것을 들 수 있다. 한국리에서든 청석동에서든 물질운동이나 경제운동은 아직은 계획의 단계에 있는 것일 뿐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마음의 운동이나 정신개조는 어지간히 이

4) 『동아일보』, 1936.3.18.

5) 『文藝公論』, 1929.5. 77쪽.

6) 宮田節子, 일제하 한국에서의 농촌진흥운동, 『한국근대민족운동사』, 안병직 외, 돌베개, 1980, 195쪽.

루어진 셈이다.

심훈이 『상록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귀농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심훈을 이러한 운동의 선구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미 1920년대 후반기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잡지간행, 대중연설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농촌운동이 고취되었다. 이미 1920년대 후기부터 우리 소설사는 귀농 모티프와 계몽 모티프를 중심적인 것으로 취한 작품들을 여러 편 보여 주고 있다. 『조선농민』(1926), 『농촌』(1926), 『농민생활』(1929) 등의 여러 농민잡지가 간행되었으며 『조선일보』는 1929년 3월 창간 9주년 기념사업으로 <농촌생활개선 운동>을 펼쳤고 『동아일보』는 1931년에서 1934년까지 <학생 하기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에 金一大는 『東光』에 발표한 「천도교 농민운동의 이론과 실제」를 통해 당시 조선 농민운동의 계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⁷⁾

- 一. 當局의 殖民政策에 依한 細農民救濟事業
- 二. 基督教 布教 政策에 依한 農村振興事業
- 三. 社會主義 實現政策에 依한 階級鬭爭運動
- 四. 社會破壞政策에 依한 無政府主義運動
- 五. 地上天國建設政策에 依한 朝鮮農民社 活動

위에서 다섯 번째의 계열에 속해 있었던 김일대는 농촌 사업 중 가장 급하고 긴요한 것은 협동조합 운동이며 그다음이 識字運動 그리고 그 다음이 소작운동이라고 하였다. 『상록수』에서는 채영신에 의해 1번과 2번의 사업이 주도되고 박동혁에 의해 1번과 3번의 운동이 펼쳐진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동광』지에서는 1931년 4월호에 생산증식, 생활개선, 협동조합운동, 식자운동, 소작운동 중 어느 것이 최긴급무인가 하는 설문과 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답을 소개해 놓았다.⁸⁾ 『상록수』는 남녀 주인공이 식자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개선, 협동조합운동 그리고 소작운동을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동혁이 악덕 지주이며 고리대금업자인 강기천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내었다는 것은 바로 소작운동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馬鳴⁹⁾은 「조선농촌의 진흥책」에서 김일대보다는 구체적이며 분산적인 농촌운동 방법의

7) 『東光』, 1931.4, 42쪽.

8) 줄재, 한국현대소설연구, 민음사, 1987, 164-165쪽.

각 종교나 단체를 대표하여 조만식, 김기전, 조두서, 이주윤, 함상훈, 한장경, 노동규 등이 설문에 답하였다.

9) 임영태 편, 植民地時代 韓國社會와 運動, 사계절, 1985의 부록에서 鄭宇洪 또는 鄭宇鎬의 필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갈래를 제시하였다.

一, 각지에서 맹렬히 이러나는 文盲退治運動(夜學運動)가튼 것은 그 전에도 업지는 안
엇지만 이 기간에 더욱히 蔚興함을 보게 되었나니 이에 이것을 영합하기 위하여 신문사에
서는 뿌나로드 운동을 계획하게 되고

一, 여기저기서 계획하는 模範村式 農村改良運動

一, 농민을 중심으로 한 消費組合運動¹⁰⁾

「상록수」에서 문맹퇴치운동이 중심사업이 되고 있음은 두말 할 것 없다. 소비조합운동
도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거니와, 〈모범촌식 농촌개량운동〉은 동혁이 영신 사
후에 주도할 앞으로의 운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박동혁은 영신의 장례를 치루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 오는 길에 몇 군데 모범촌을 둘러 구경하고 깊은 감화를 받는다. 그는 모
범촌의 지도분자들과 토론하고 경제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앞으로는 농촌운동을 통
일시켜 보겠다는 야심을 다지게 된다.

이어 馬鳴은 문맹퇴치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운동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文盲退治運動은 왜 이러나게 되는가 그것은 길수록 無知로부터 오는 悲哀와 痛苦를 深切히
늦기는 農民大衆의 강렬한 욕구에 의하여 이러나게 되는 것이니 하로하로 猶豫를 하여서는
아니 될 急切한 운동임은 말할 것도 업다. 그러나 이 운동은 흔히 小地主의 子弟나 또는 농
촌의 有聞者를 그 主要分子로 하는 일이 만으며 그것으로 이 운동은 아주 소뿌르파의 消日거
리적 사업과 가튼 감이 업지 아니하여 지식적 知渴에 허덕거리는 대중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
주지 못함은 말할 것도 업다.¹¹⁾

『상록수』는 문맹퇴치운동을 〈소뿌르파의 소일거리적 사업〉과 같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
는 것과는 정반대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작품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박동혁과 채
영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맹퇴치운동으로서 농촌운동이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는
데로 나아 가고 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이나 비판을 보여 줌으로써 『상록수』는 열린 소설
로 다가 가게 된다. 영신이 바라고 동혁이 다짐하고 있는 것처럼 동혁은 농촌운동가로서
영신이 미처 하지 못한 일까지 다 할 계획을 갖게 된다.

10) 『彗星』, 1932.1. 5쪽.

11) 같은 책.

3. 「崔容信 孃 傳記」와 『상록수』 비교

1935년 5월 1일자로 발행된 『中央』에 여류 시인 盧天命이 「샘골의 天使 崔容信 孃의 半生」이라는 제목 아래 3페이지 분량의 글을 써 놓았다. 실존인물 崔容信은 『상록수』의 주인공 蔡永信의 모델임에 틀림없다. 이 최용신양의 전기에서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박동혁의 모델도 밝혀지고 있다. 최용신 양의 약혼자 K가 바로 박동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용신과 채영신 사이의 거리에 비한다면 최용신의 약혼자 K군과 『상록수』의 주인공 朴東赫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져 있다. 최용신의 약혼자 K의 행동, 즉 최용신을 사랑하는 것과 최용신과 농촌운동의 동지가 되기로 약속하는 것만을 재현한 결과가 박동혁이라고 할 수 있다.

심훈은 노천명의 글을 보고 난 바로 직후인 5월 초에 『상록수』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노천명이 작성한 최용신양 전기와 『상록수』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록수』의 정확한 해석과 자리매김을 위한 선결작업이 된다.

최용신은 1935년 1월 23일에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가 사망한 곳은 청춘을 다 바쳐 일하던 수원 근처의 半月面 泉谷里(샘골)였다. 그녀는 본래 원산 태생으로 고향에서 樓氏女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 와 신학교를 다녔다. 신학교 재학 중에 하기 방학 때면 농촌에 가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 왔다. 신학교를 졸업하자 <京城女子 基督教 青年聯合會의 파견을 받아 가지고 1931년 봄에 경기도 수원군 샘골이라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 『상록수』에서는 靑石洞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다.

처음에 그가 여기를 드러섯을 때에는 우선 泉谷里 敎會堂을 빌려 가지고 밤에는 번가라 가며 農村婦女들과 청년들을 모아 놓고 가리키고 낮이면은 어린이들을 가리킬 때 배움에 목말라 여기에 모이는 여러 아동의 수효가 백여명에 달하고 보니 警察 當局에서는 八十名 더 收容해서는 안된다는 制裁가 있게 되자 부득불 그 중에서 80명 만을 남기고는 밖으로 내보내야만 할 피치 못할 사정인데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은 제각급 안 나가겠다고 선생님 선생님 하며 최양의 앞으로 닥아 앉으니 이 중에서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둘 것이냐? 그는 여기서 뜨거운 눈물을 몰래 몰래 써서가며 억일 수 업슨 명령이매 할수없이 팔십명만 남기고는 밖으로 내보내게 되니 아이들 역시 울며울며 문밖으로는 나가스나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담장으로 들 냉겨다 보며 이제부터는 매일같이 이 담장에 매달려 냉겨다 보며 공부들을 하게되었다. 이 정경을 보는 崔孃은 어떠케든지해서 저아이들을 다 수용할 건물을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불같은 충동을 받게 되자 그는 農閑期를 이용하여 養蠶을 하고 養鷄 기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副業을 해가지고 돈을 좀 댈드러서 집을 짓게 되었스니 여름달 밝은 때를 이용하야 그는 아이들과 껌을 들고 강가로 나가서 모래와 자갯돌들을 날러다가 自己 손으로 손수 흙을 캐며 반죽을 해서 농민들과 갯치 泉谷學術 講習所를 짓게 되었든 것이다.¹²⁾

위의 내용은 『상록수』에서는 제 45회(1935.11.3)부터 49회(1935.11.8)까지에 걸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상록수』에서는 이야기의 길이가 늘어 나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다르다. 『상록수』에서 채영신은 아이들이 130명이나 몰려 그렇지 않아도 기금 모아 건물을 새로 지어 교회로부터 나갈 계획이었다. 그녀는 주재소로부터 <아동을 80명 이상 받지 말라>, <기부금 강제로 걷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영신은 금 그어 놓고 늦게 오는 아이들을 내보내었으나 담장 밖으로 쫓겨 난 아이들은 울타리에 매달려 창 너머 칠판을 보며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신은 건물 지을 기금을 모으러 여기저기 정신 없이 돌아 다닌다. 바로 이 과정에서 그녀는 건강을 잃게 된 것이다.

노천명이 <최양은 밤이나 낮이나 나를 해아리지 않고 오로지 농민들을 위해 일하고—(중략)—논에 드러가 모를 내는 일까지 다 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 샘골의 의사도 되고 때로는 목사 재판장 서기 노릇을 다 겸했었다고 한다.>와 같이 기술한 것은 『상록수』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상록수』에서는 채영신이 농부들과 똑같이 육체노동을 한 것으로는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절대신뢰하여 어디라도 아프면 찾아 오고 심지어는 부부 싸움을 한 사람들도 시비를 가려 달라고 올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이 채영신을 의사로도 기대하고 판사로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다. 노천명이 지면 관계상 추상적으로 기술한 데 비해 심훈은 디테일을 갖추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노천명이 뼈를 제시한 것에도가 심훈은 살과 피를 부여하여 하나의 생명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崔孃은 여기서 좀더 배워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더 풍부한 것을 주겠다는 마음에서 그는바로 昨年 봄에 神戸 神學校로 공부를 더 하러 떠나게 되었었다. 그러나 意外에도 脚氣病에 걸려 가지고 더 풍부한 양식을 준비하러 갔든 그는 건강만을 훔쳐 가지고 작년 가을에 다시 조선을 나오게 되었을때 병든 다리를 끌고 제일 먼저 찾아 간 곳은 情든 샘골이었다.¹²⁾

『상록수』에서는 제 110회(1936.1.24)에서 113회(1936.1.28)까지에 걸쳐 채영신이 일본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재미도 없고 병도 재발하여 다시 돌아 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그녀가 일본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당시의 기독교계가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 되며 채영신이 병이 재발하여 자칫 맞을지도 모르는 비극적 결말을 향한 복선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상록수』에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최용신 전기에서는 <용신이 샘골에 와서 일한지 4년이 지나 천곡리 일대의 인심이나 생

12) 『中央』, 1935.5. 57쪽.

13) 같은 책, 58쪽.

활에 큰 향상이 있게 되자 근방에 있는 野牧里의 청년들이 몰려 와 자기동네 좀 지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경성연합회에서 그동안 30원 씩 대 주던 것도 돈이 없어 못 대준다고 하던 참이었다. 야목리를 돌 보아 주는 조건으로 수원고농학생 유지회에서 한 달에 10원씩 대주기로 하여 최용신은 샘골의 사업을 계속 해 나가기 위해 건강이 안 좋은 데도 일을 맡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록수』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찾아 볼 수 없다.

노천명은 최용신양이 많은 사람들의 애타는 기도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7가지 유언을 남기고 죽어 가는 것을 서술한 다음 곧바로 이어 최용신과 약혼자 K군과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최양이 원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원산의 명사십리를 배경으로 하여 동향인 남자와 사랑을 나누며 장래를 굳게 약속하였다. <그들은 오직 이 땅의 일꾼! 우리는 農村을 開拓하자는 거룩한 事業의 同志로써 굳게 그 마음과 마음의 약속이 잊엇든> 약혼자는 최양이 일본에 와 있을 때 만나 결혼하자고 조르기도 했으나 <어디까지 이지적이며 대중만을 생각하라> 최양은 이를 거절한다. 최양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은 약혼자는 일본에서 금방 나오지를 못하고 겨우 노비를 변통해서 귀국했으나 이미 최양은 관 속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이었다. 그는 <용신아! 네게는 여자들이 다 갖는 그 허영심이 왜 좀 더 없었드란 말이냐!>며 통곡하다가 까무라치기도 했다고 한다. 『상록수』의 122회에서는 감옥에서 막 나와 영신의 사망소식을 늦게 접한 동혁이 도착하여 <전기>에서의 K와는 달리 울음을 참으면서 <왜 당신은 다른 여자들처럼 일하는 것 밖에 허영심이 없었드란 말요?>한다. 노천명의 기술을 박동혁이 복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에서의 약혼자가 보여 준 행위는 그대로 옮겨졌으나 K에서 박동혁으로 이름이 달라졌고 이론가 K에서 실천가 박동혁으로 농촌운동의 기본정신이 달라졌다. 전기에서의 약혼자는 농촌운동에 뜻을 품고 있을 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신분이다. 최용신을 도와 준 것도 없고 같이 일한 적도 없다.

(가) 그리고 平素에 崔孃이 만지든 物品들은 저마다 갖다두고 「우리 崔先生 본뜻키 두고 보겠다」고 하며 제각금 울며 빼서가서 나중에는 그의 요넛 벼개넛 신발까지도 눈물 바든 치마 자락에 싸가지고들 父母喪이나 당한 것처럼 悲痛에 싸여서 끝일줄을 몰랐다고 하니 地上의 天使가 아니고 무엇이였스랴.¹⁴⁾

(나) 빈소 방에는 어느 틈에 책상 하나만 남기고 영신이가 쓰든 물건이라고는 불한당 거쳐 간듯이 하나도 남지 안었다. 영신의 손때가 묻은 손풍금은 원재가 가져 가고 바람차고 눈 뿌리는 밤이면 저를 품어 주던 짜켓은 금분의 차지인데 부인네들은 요이불 벼개허다 못해 구두 구무신까지 다투어가며 짹짹으로 치맛자락에 싸가지고 갔다. 그만 물건이

14) 같은 책, 59쪽.

탐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보듯이 두구두구 볼테다」하고 서투 빼앗기까지 한 것이었다.¹⁵⁾

(가)는 「최용신양 반생」의 일부이며 (나)는 『상록수』의 한 부분이다. 『상록수』가 「전기」를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상록수』에서 여러 번 보이는 감동적인 장면은 「전기」에서 취해 온 것이 많다. 최용신이 그녀의 유언대로 천곡 강습소가 마주 보이는 곳에 묻힌 것과 마찬가지로 채영신도 역시 유언대로 청석학원이 마주 보이는 곳에 묻혀 있다.

4. 갈등양상

『상록수』에는 인물들 사이의 각종 갈등관계가 펼쳐져 있다. 영신은 영신 대로 동혁은 동혁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자신의 신념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기에 주위 사람들의 반대나 냉대도 적지 않게 받았다. 물론 두 사람 다 지지자의 숫자가 반대자보다는 많기는 하다. 『상록수』에는 영신—백현경, 영신—김정근, 영신—엄마, 영신—동혁, 영신—동네 부자, 영신—주재소, 동혁—강기천, 동혁—건배, 동혁—동화, 동혁—영신 등과 같은 여러 갈등 관계가 있다. 영신이나 동혁은 자기 내부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건배나 동화도 동혁에게는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갈등을 느꼈다.

가령, 영신은 한곡리의 백사장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하느님, 일과 사랑과 두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주시옵소서. 저의 족속의 불행을 건지기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고, 당신께 맹서한 저로서는, 지금 두가지 길을 함께 밟을 수가 없는 처지에 부닥처습니다. 오오 그러나 하느님 저는 그 두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¹⁶⁾와 같이 내 보였던 내적 갈등을 이 소설에서 자주 보여 주고 있다. 영신은 〈연애를 하는데 소모하는 정력이나 결혼생활을 허느라구 또는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을 원통 우리 사업에다 바치구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일에도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에게도 근접하고 싶어하기는 하나 일의 인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었다. 동혁은 〈그러케 굳은 결심을 허구 실지로 일을 해 나가는 사람끼리 한 몸등이루 뭉쳐서 힘을 합하면 갑절이나 되는 효과를 얻지 안кет세요〉¹⁷⁾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의 점근과 사랑에의 인력을 합쳐 보자는 입장이다. 결국 두 사람은 3년동안은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영신은 한곡리를 다녀 와서는 어머니와 김정근에게 파혼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다. 영신은, 어머

15) 『동아일보』, 1936.2.6.

16) 『동아일보』, 1935.10.23.

17) 『동아일보』, 1935.10.29.

니와 짜고 자기를 고향으로 불러 들인 김정근을 만난 자리에서 <돈을 모아서 저 한 사람의 생활안정이나 피하려는 정근씨의 리기주의(利己主義)가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농촌이나 어촌에 돌아 가서 계몽활동을 하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 이외에 사회도 있고 민족도 있는 법이라고 충고한다.

영신과 동혁 사이의 또 하나의 갈등은 기독교를 싸고 벌어지는 가벼운 설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신이 입원한 병실에서 동혁은 서슴치 않고 기독교 교역자나 신자들을 매도한다. <권세에 아첨을 허다 못해 무릎을 꿇고 물질과 타협을 허다 못해 돈 잇는 놈의 주구가 되는 그런 놈들 앞에 내 머리를 숙이란 말씀요?>하는 동혁의 말에 루터 같은 종교 개혁가가 나와야 조선의 예수교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하면서도 영신은 기독교에 대한 믿음에 회의를 표시하지 않는다.

『상록수』에서는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동혁과 건배 사이의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배는 어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있었다가 xx사건에 앞잡이 노릇한 혐의로 이태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와 만주로 시베리아로 방황하다가 논마지기를 다 팔아 먹고 만다. 그는 동혁이가 한곡리에 오기 훨씬 전에 와서 야학을 개설했고 동혁과 협조해 가며 일을 한다. 냉수 먹으면서 이를 쭈시고다녀도 궁한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건배도 마침내는 <원수의 구복 때문에 지조를 팔고 만다> 강기천을 농우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데 앞장 서는 댓가로 군청 서기로 취직하게 된 것이다. 건배는 떠나 가기 바로 전날에 찾아 온 동혁에게 변명도 늘어 놓고 사과하기도 하였지만 굶고 사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박동혁에게서 건배를 빼앗아 간 강기천은 강도사의 큰 아들이며 강기만의 형으로 한곡리의 최고 실력자이다. 강도사는 경무국 경부를 지내 인물로 나라가 한참 망해 들어 가는 판에 부자들이나 장사치를 톡하면 도둑으로 몰아 온갖 고문을 해서 허위자백을 받아 낸 후에 돈을 긁어 모아 한곡리에 땅을 사 두었고 나중에 내려 와 살면서 돈놀이를 해서 한곡리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다.

『상록수』에서는 동혁과 강기천과의 갈등과 대립이 중심사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큰 아들 기천은 면협의회원이요 금융조합감사요 학교비평의원이면서 여기에다 한곡리 진흥회회장 자리마저 노렸다. 기천이는 <대를 물려 가면서 고리대금과 장리벼로 동리 백성의 고혈을 빨아서 치부를 하였고> 아버지를 닮아 호색한의 행동을 보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기천의 얼굴만 보면 <무슨 노리내가 나는 증생처럼 얼굴을 돌리고 슬금슬금 피한다.> 그의 동생 강기만은 M대학 정경과에 재학 중 졸업논문 쓰다가 신경쇠약이 걸려서 국내로 나왔다. 그리고는 늘 유의유식하고 다니다가 더러는 농우회 짓는데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나중에는 형의 돈을 훔쳐 가지고 서울로 달아 났다.

건배가 떠나가 버리자 박동혁은 그동안 청년들이 공동으로 모은 돈을 갖고 부채 문제를

답판짓기 위해 강기천을 찾아 간다. 평소에 동혁을 싫어 하면서도 그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있었던 기천에게 박동혁은 피를 내어 술을 많이 먹여 취하게 만든 다음, 반대파의 험악한 분위기를 슬며시 전달한 다음에, 마을 농민들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였다. 몇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얼추 본전은 되니 이것만 받고 차용증서를 없애 달라는 부탁이었다. 처음에는 고개를 흔들던 기천은 마침내 동혁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만다. 동혁은 차용증서를 태워 버릴 수 있었다.

새로 지은 농우회 회관에서 마을 진흥회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기천이 회장이 되었고 동혁은 부회장 겸 서기가 되었다. 동혁은 취임사에서 자력갱생론과 개혁론을 연설한다. 그는 한곡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을 벗어 나지 못하는 이유로 우선 〈고리대금업자〉를 들었다. 이어 동혁은 주채소 주임, 금융조합 리사 등의 유력자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강기천씨는 이번에 진흥회장이 되신 기념으로 여러분의 채권까지도 모조리 포기하실 줄 믿는다〉는 말로 못박는 고도의 방법을 썼다. 강기천은 진흥회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취리와 장리를 놓는데 편의를 얻고〉, 〈위엄을 부려 재산을 늘리는 간접적 효과를 얻어 보려든 계획〉이었지만 결국 박동혁의 수에 밀리고 만 것이었다. 그러면서 박동혁은 당시의 농촌 현실의 정곡을 찌르는 연설을 계속한다.

아무리 농사를 개량한대도 지주와 반타작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생계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지령」이라는 것이 생겨서 함부로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하게는 됐지만, 지금같이서는 지주들이 얼마든지 역용(逆用)을 할수가 있게 된것입니다. 우리 도내만 해도 「농지령」이 실시된 뒤에, 소작쟁의(小作爭議)의 건수가 불과 오개월 동안에 천여건이나 되는 것을 보아,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주나 소작인이 함께 살려면 적어도 한 십년 동안은 소작권을 이동시키지 말고, 금년에 받은 석수로 따져서 도지로 내 맡길것 같으면, 누구나 제 수입을 위해서 나농(懶農)을 할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이만한 근본책을 실행치 못하면 농촌진흥이니 자력갱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헛문서에 지나지 못합니다!¹⁸⁾

박동혁 아니 심훈은 당시의 농촌 현실을 정확하게 짚는 가운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여기에다 박동혁은 반상구별의 낡은 관습을 없애야 하고 관혼상제의 비용을 절약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5. 박동혁과 채영신 비교

『상록수』에서 박동혁과 채영신은 사랑하는 사이이면서 농촌운동의 동지이기도 하지만 농촌운동 방법의 면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심훈의 진보주의적 정열과 계몽

18) 『동아일보』, 1936.1.18.

19) 田英泰, 進歩主義的 정열과 啓蒙主義的 이성, 『한국근대작가연구』, 김용성 우한용 공편, 삼지

주의적 이성이 잘 조화된 인물이 박동혁이고 채영신)¹⁹⁾이라는 지적처럼 기본정신의 면에서는 두사람은 일치하지만 이 기본 정신을 구체화하는 태도나 방법의 면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를 드러 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 소설의 첫 장면인 학생계몽운동대원 위로다과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박동혁보다 늦게 발언권을 얻은 채영신이 박동혁의 〈민중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였지만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의 연계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동혁이 〈물질로 즉 경제적으로는 일조일석에 부활하기가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온갖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 요셋말로 「이데올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우려야 하겠습니까!〉고 하였다. 〈우리 민중에게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 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제창하자 사회자는 〈사상운동과 계몽운동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준다.²⁰⁾ 한마디로, 영신은 사상운동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은 입장이다.

동혁과 영신은 여자 기독교 연합회 총무로 있는 백현경 선생 집으로 초대되어 가서 저녁을 먹는데 동혁은 백현경의 면전에서 모임의 성격과 장소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쏘아 붙인다. 동혁은 그집을 나와 영신과 나란히 걸어 가면서 〈허지만 농촌운동일수록 무엇보다 실천이 제일일줄 알어요. 피리를 부는 사람 따루 잇구 춤을 추는 사람이 따루 잇든 시대는 벌써 지냈스니까요. 우리는 피리를 불면서 동시에 춤을 추어야 합니다.〉²¹⁾고 하였다. 이러한 실천 중심주의나 실천과 이론의 병합주의를 채영신이 모를 리도 없을 뿐더러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백현경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채영신은 박동혁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박동혁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불신하는 입장에 있었다.

「참 영신씨는 크리스찬(예수교 신자)이시지요?」

「천 어려서 버텨 믿어 왔어요. 왜 동혁씨는 요새 유행하는 맑스주의자서요?」

「글쎄요…………그건 차차 두구 보시면 알겠지요. 아무튼 신념(信念)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나 봉사(奉仕)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허는 것두 조켓지요. 그러치만 자본주의에 아침을 허는, 그따위 타락헌 종교는 믿구 싶지 안허요」²²⁾

『상록수』의 이후의 부분에서 박동혁이 마르크시스트로서의 행동을 보이고 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앞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이자 면협위원인 기천에게 찾아 가 부채 탕감의 결과를 얻어 오는 것은 어느정도 마르크시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채영신이 기독교 계통의 농촌진흥 사업

원, 1985, 331쪽.

20) 『동아일보』, 1935.9.13.

21) 『동아일보』, 1935.9.22.

22) 『동아일보』, 1935.9.25.

책에 그 정신의 바탕을 두었던 것에 반해, 박동혁은 심훈의 동반자 작가적 성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부정하지는 않은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계급투쟁운동을 핵으로 한 사회주의 농촌운동 방법에 어느 정도 동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혁이가 자기 고향에 내려 갔던 것과는 달리 영신은 농촌 계몽운동하러 갔던 청석골로 간다. 농촌운동하기 위해 고향에 간 것과 타동에 간 것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 낸다. 박동혁은 자기의 부모로부터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데 비해 영신은 노골적으로 배척 받은 것은 아니지만 동리 사람들의 큰 도움과 적극적 지지는 받지 못 했다. 박동혁은 여러 명의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영신의 앞에는 주로 계몽대상자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채영신의 홀로 된 어머니는 딸을 공부 시키느라 생선 광주리를 아교 다니면서 장사를 하였는데 어머니는 어려서 약혼한 사이인 김정근과 딸이 결혼을 하여 짚 살갓을 바란다. 영신의 어머니는 딸이 하는 일에 자연 반대하는 입장일 수 밖에 없었다.

한곡리로 돌아 간후 박동혁이 한 일은 농우회관 완성, 공동담 설치, 부인근로회 조직, 고리 대금업자 강기천에 대한 저항과 설득, 진흥회 운영, 반상타파론 계몽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채영신이 청석골에 가서 한 일들 중, 가장 뚜렷한 것은 강습소 운영과 청석학원 건립이다. 채영신은 청석골에서 판사, 의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온갖 일을 하고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였지만 가시적인 사업은 박동혁만큼은 하지 못하였다. 나중에 채영신도 협조자들을 얻었지만 동지의 수준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채영신이 주재소로부터의 경고, 강습소 건물 건축비 모금, 발병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식자운동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반해 박동혁은 영신이 앓아 누었을 때 간병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또 건배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간 것을 계기로 해서 식자운동이니 단체훈련이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계몽운동을 반성하게 된다.

「입때까지 우리가 헌 일은 강습소를 짓고 글을 가르친다든지, 무슨 회를 조직해서 단체의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일테면 문화적인 사업에만 열중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생활면에 치중해서 생산을 하기 위한 일을 해 볼 작정이예요. 언젠는 그런 생각을 못한건 아니지만, 외면치레가 아니고 내부적(內部的)인 문제를 생각허구 또 실행해야 될 줄루 생각허요」 「참 그 래요. 무엇보다두 생활이 잇구서 그 다음에 문화사업이구 계몽운동이구 잇을 것 가태요.」

영신에도 매우 동감인 뜻을 보인다.²³⁾

동혁은 건배가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천의 품으로 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를 절감하게 된다. 그는 확실하게 <표면적(表面的)인 문화운동(文化運動)에서 실질적(實質的)인 경제운동(經濟運動)으로—>라

23) 『동아일보』, 1935. 12. 22.

는 슬로건을 마음 속으로나마 내걸게 된 것이다. 박동혁은 <이제까지 단체를 조직하고 글을 가르치고, 회관을 번듯하게 지으려고 한 것은 요컨대 매마른 땅에다가 암모니아나 과린산석회(過磷酸石灰) 같은 화학비료(化學肥料)를 주어 농작물이 그저 영부렁하게 자라는 것을 보려는 성급한 수단이 아니었든가>²⁴⁾하고 반성하게 된다. 영신은 바로 동혁이 반성하는 대상인 단체 조직, 식자운동, 회관건립 등의 수준에 머물고 만 것이다. 청석학원이 건립되고 난 다음, 영신은 슬로건을 써서 벽에 붙여 놓았는데 여기에서도 경제투쟁이나 정치투쟁을 암시한 것 정도도 찾을 수 없다. 동혁이 제기한 고리금지, 부채탕감, 소작권 이 동금지, 반상타파 등의 자력갱생론은 마르크시스트였기에 가능했고, 동생을 포함한 동네 청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자기 고향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 『상록수』는 <계급의식과 일제에 대한 반항의식을 분명하게 내 보인 것>²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신은 맹장수술하고 병원에 오래 있다가 퇴원한 후 아픔과 쓸쓸함과 서글픔과 싸우면서 그 동안의 자기 생활에 대해 일말의 회의를 갖게 된다. 그녀는 하느님보다는 사람을, 종교보다는 과학을 믿고 싶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박동혁과 채영신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동혁이 수단과 목적을 분리하여 때로는 적대자인 강기천과 타협하기도 하고 과격파인 동생을 만류하기도 하는데 비해, 채영신은 한남청의 회갑잔치에 가서 일장 연설을 하고 일주일 동안 구류 살고 나온 데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수단과 목적을 동일시하는 면도 있다. 결국, 동혁은 영웅적 면모를 지향한데 반해 영신은 희생적 인물로 귀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혁이 자기확충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영신은 자기희생의 비극적 결말을 보이고 말았다.

24) 『동아일보』, 1935.12.27.

25) 全光鏞, 沈熏과 「常綠樹」, 『韓國現代文學論攷』, 민음사, 1986, 111쪽.

《Summary》

A study on Hoon Sim's 『Evergreen tree』**Nam-hyon Cho**

The novel 『Evergreen tree』 was a prize winning novel, but Hoon Sim was an established writer who had written several works since 1926. After the latter half of 1920s, a movement to uplift the rural society was spread in various ways. Hoon Sim put emphasis on the illiteracy eradication campaign. Besides, he tried to describe a cooperative association campaign and a tenancy dispute movement in 『Evergreen tree』. Donghyuk Park and Youngsin Chai came to realize the limits of the illiteracy eradication campaign.

It was thought that Hoon Sim wrote 『Evergreen tree』 after he read the biography of Yongsin Choi. This fact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understand this work correctly, we need to compare this work whose heroine is Youngsin Chai with the biography of Yongsin Choi.

In this novel the hero and the heroine represented the same spirit. Their will to enlighten the people was strong equally, but they showed the difference in the method of the movement. As a result Donghyuk Park could be the heroic figure, while Youngsin Chai came back to self sacrificing person.

